

작은 꽃

주요 날짜:

- 4 월 6 일
Soup Kitchen 봉사
- 4 월 13 일
성경모임
- 4 월 23 일
아시시의 복자
에디치오 기념
- 4 월 25 일
성 마르코 복음 사가
축일
- 4 월 27 일
월례회
- 4 월 28 일
복자 루케치오 기념

다음쪽:

월례회
성경모임
한 걸음씩



재속 프란치스코 성 디에고 형제회 소식지

가까운 행복

기 옥순 루피나, SFO

아침에 눈을 뜨니 비가 꽤 많이 내렸다. 아니 내일 모레가 결혼식인데 – 우선 걱정이 앞선다. 그 많은 날들에 한 방울도 뿌리지 않던 비가 낮, 밤을 꼬박 많이 내렸다. “그래 좋게 생각하고 지나가자.” 결혼식날 아침 우리 며느리감이 “어머님”하고 전화를 하면서 “더러운 것을 다 씻어 내리더니 오늘은 너무나 좋은 날이에요요” 한다. 그 아이는 며칠을 그대로 인생의 한토막에 걸고 감동적인 생각을 한 것이다. 몇개월 동안 준비해온 그 작품 속에서 기뻐할 것을 생각하다니 대견스럽다. 30년 넘게 키운 자식들이 돌인데 결혼을 하여 짝들을 다 맞추고 나니 나는 너무나 허전하다. 그 아이들을 예뻐했던 생각보다는 내 손이 아프도록 때린 기억과 같이 엉엉 울며 객지 생활에 부대끼 마음을 부둥켜 안았던 일, 마음에 고통이 쌓여 쓰러져 가던 일, 모두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헌데 신부님 말씀이 아들과 며느리 마음을 어루만지실 때 나는 또 가슴 저리도록 통곡하고 싶어졌다. 정말 내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내가 따뜻한 사랑의 어머니의 품을 얼마나 주었을까? 썰렁한 텅빈 엄마가 없는 방만을 그들에게 주지나 않았는지... 그들 귀에는 “엄마는 바빠, 엄마 갈 때까지 공부 잘하고 있어”하는 소리가 쟁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며느리가 눈물을 줄줄 흘린다. 부모는 자식한테는 기둥이다. 우리 기둥들이 든든해야 한다. 아이들이 잘 되는 걸 바라는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포함해 정말 내 살이라도 뜯어주고 싶고, 내가 아파주고 싶고, 애들만은 승승장구 잘 되기를 바란다. 이 늙은 나이에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보고 싶어진다. “어머니 현숙이야 어머니” 나만 보면 늘 우리 현숙이한테 미안하다 하신다. 난 지금도 어머니 앞에선 어린애다.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고 모시지도 못한 친정 어머니

생각만 해도 눈시울이 뜨거워 진다. 시집와서 애들이 국민학교 들어갈 때 까지도 서산을 보며 눈물짓고 낙엽이 Dinggle 울고, 비만 쏟아져도 어머니한테 가고 싶어했다. 그랬던 나를 내 아이들도 그토록 생각하고 있을까? 그건 부끄럽게도 내 자신이 아닐게야 한다. 외국어로도 우리 한국어인 “어머니”란 단어가 그토록 포근하고 따뜻하고 편안할까? 내가 어머니가 되면서 수줍어 하던 때를 생각해 본다. 배가 불러오는게 부끄럽고 일하는데 더디다는 생각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스파 천을 온통 휘감고 다닌 것을 생각하니 미안하다. 그런데도 그렇게 크게만 자라주어 고맙다. 이제는 마음도 더 크고 하느님의 사랑을 알아 넉넉하게 베풀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다. 어디서 “어머니—“하는 소리가 들린다. “응, 여기있다”했는데 그건 나의 귀에만 들린다.

작은 일도 주체 못하는 나에게 오늘 이토록 큰 축복으로 아들의 짝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큰 절을 하고 싶다. 우리 가족을 축하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 께안고 한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싶다. “이모! 울지마” 하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어느새 울고 있었다. 이것은 슬픔이 아닌 감동의 눈물이다. 즐거운 음악소리도 맛이 있는 고기도 먹고 싶지가 않다. 입은 다 타서 터져 피가 흐른다. 남편 바오로 씨를 바라보니 많이 지쳐 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바오로씨의 얼굴은 뽀얀 얼굴에 그윽한 웃음이 참으로 편안했다. 그 모습이 그림이다. 우리는 멀리있는 아름답고 좋은것에 매우 흥미를 느낀다. 그러나 내가 느끼지 못한것은 “내 집 앞 잔디밭에 땀혀있는 이슬 방울의 아름다움이다”라고 시인 타고르는 쓰고있다. 우리는 우리의 옆에 익숙해 있는 그 무엇이든 새롭게 느끼고 바라보며 행복을 찾아야 하겠다.

성 디에고 형제회

월례회:
매달 4 번째 주일
오후 2 시 30 분
St. Columba 성당
3327 Glencolum Drive
San Diego, CA 92123

전화:
(858) 484-1943

E-MAIL:
oh_younghoon
@yahoo.com

‘작은꽃’에 관한 문의:

전화:
(858) 618-1164

E-MAIL:
kwon_youngwhan
@yahoo.com

월례회

지난달 24 일 월례회에는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의 최아네스 수녀님께서 저희 형제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복팔단 중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정의하시면서, 천주교가 들어오기 전에 세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천주교인다운 삶을 사신 한국의 첫 실천 신앙인 농은(農隱) 홍유한의 삶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적과 수단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으면 어디서나 떳떳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어거스틴 성인의 ‘주님, 당신 하나면 됩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성화의 삶을 지향하자고 부탁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각 반별로 흠어져 양성을 마치고 다시 모여 월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달 세상을 떠난 이웃 Immaculate Conception 형제회의 Larry Frasier 형제의 장례미사에 참례하였던 미셸과 로사 자매가 죽음 자매를 맞을 준비가 되어있었던 Larry 형제의 프란치스칸적 삶과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남긴 그의 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Oh Lord, nothing but You!”

성경모임 - 집회서

저자의 이름을 붙여 "벤 시라의 잠언"이라고도 불리는 집회서는 히브리어로 쓰



진진한 학습 태도

여겼던 것을 저자의 손자에 의해 그리스어로 번역되었고, 초대 교회에서 세례를 준비하는 예비신자에게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다른 성서와는 달리 저자가 자신을 알린 것은 당시의 헬레니즘의 영향에 의해서라 전해진다.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서 전통 신앙에 대해 의문을 품고 회의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계시된 하느님의 참 지혜를 알려 주어 그들을 지혜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모든 지혜는 "주님을 두려워 함에 있고"(1-23 장), "지혜의 근원은 하느님의 말씀"(1,1-4,10)에 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으며 인간이 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의 인생 문제를 방대하게 다루고 있다. "네 이웃의 불의를 용서하여라. 그러면 내가 간청할 때 네 죄도 없어지리라"(28,2)는 말씀을 묵상하며 공부하는 동안 마음이 무거웠다.

용서!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도 교만이 아닌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그것이 "네 이웃의 불의"라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은 내 죄의 사함을 위해 이웃의 불의를 용서하라고 하신다. 주님! 용서를 무관심으로 묻어 버리려는 저를 용서하소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 하듯이 저희를 용서 하시고..."에도 부끄러움을 느낀다.

[세레나 정리]

십자가의 길은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의 순례자들이 빌라도 관저에서 갈바리아 산까지 걸으면서 드린 기도에서 유래된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오늘날과 같은 구체적인 형태나 기도가 아니었고, 14-5세기 경부터 십자가의 길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칸이 성지의 관리를 맡으면서 십자가의 길 기도는 신심행사로 자리잡게 되었고, 세계 곳곳에 있는 프란치스코회 수도원들과 수도원 성당들에서 일반화되면서 지역 성당으로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순례지가 지리적, 정치적인 장애를 받게 되자 유럽에서는 성지 모형의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1637년에 이르러 교황청에 의해 오늘날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1731년 교황 클레멘스 12세는 모든 교회에 십자가의 길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처의 숫자도 14처로 고정시켰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신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는 신심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가 가지고 있는 엄격한 틀이 아니라 각 처가 기념하는 예수님의 수난 사건들을 통해 이끌어내는 기도와 묵상이라고 합니다.